

국채 알림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현장을 가다

2025년 12월 4일(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을 위해 헌신한 상담사 및 유관기관을 격려하는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복지·금융·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합취업애로를 해결하고, 1:1 맞춤형 밀착상담으로 취업을 이끈 직업상담사 37명과 청년취업지원 모델을 구축한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4개 기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주아 상담사(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AI 기반 잡게어를 적극 활용, 지역 내 일자리 동향 분석을 통해 참여자에게 꼭 맞는 구인기업을 추천하여 취업성공을 이끌었고, 손보경 상담사(퍼스트인잡)는 인턴형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여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자들의 취업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신 상담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2026년에는 지원인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청년 등 더 많은 구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쓸국취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으로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원내용 월 6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 중 I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다만,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I 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최대 37세)

※ 지원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국채 마음챙기기

국채 상담사님들이 전하는 희망·공정의 메시지! 함께 공유해요.

인생에는 확실한 것이란 없고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



제 18호

2025.12.26.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취업으로 가는 길 국·취·로



일생일대 취업이름



일과 생활안정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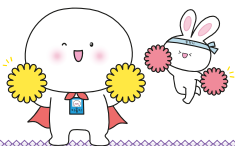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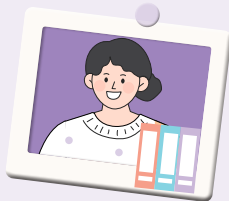


“당신의 꿈, 우리가 응원합니다” — • 상담사와 구직자가 함께 쓴 취업성공 스토리



15개월의 동행, ‘자립의 문’을 열다

대상
개인부분



김 주 아 _ 상담사 /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립준비청년 민정 씨(가명, 23세)는 간호학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졸업 후 1년간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막연히 사무직 취업만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학을 선택한 건 본인 의지라기보다 보호시설 담당 선생님의 조언을 따른 선택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습시간에 공황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실습을 포기하고 겨우 졸업만 했대요.”

김주아 상담사는 필수 역량을 갖추도록 ITQ와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의 훈련과정을 연계했다. 민정 씨는 자립준비청년 채용행사에 참여해 1차 면접에 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겠다는 2차 면접에는 응하지 않던 민정 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울증 악화와 위급 상황으로 연락이 끊겼고, 보호시설로 돌아가게 되면서 제도 참여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규정상으로는 2차 통보 이후 참여 중지가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 주변엔 도와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데...’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김주아 상담사는 꾸준히 문자를 보내며 민정 씨를 챙겼고, 두 달 만에 센터로 돌아왔다.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와 구직활동 끝에 정리사무직으로 취업한 민정 씨는 취업과 동시에 탈수급 하며 ‘자립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한계를 넘은 달콤한 성공, 지적장애 청년이 구워낸 제빵사의 꿈

대상
개인부분



손 보 경 _ 상담사 / 퍼스트인잡㈜ 거제지사

“근우 군은 예의도 바르고, 상담 내내 설명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빵사나 바리스타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에서 ‘이 친구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감이 왔어요.”

조리제빵학과를 졸업한 지적장애 청년 장근우 군(가명, 19세)은 제빵기능사와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경험이 부족해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도 많았다.

“심적으로 불안한지 자기가 준비가 부족하니까 단순포장 같은 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한계를 긋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경험도 쌓고 자신감도 키울 겸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에 인턴형 일경험을 연계했어요.”

이후 근우 군은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일경험을 했던 베이커리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근우 군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터라 주 15시간 시간제 근무를 제안받았다.

손보경 상담사는 유선 모니터링과 현장방문으로 근우 군의 업무 적응을 점검하며 사업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고, 50여 일 후 근우 군은 정규직 제빵사로 전환되었다. ‘일이 재밌다.’고 환하게 웃는 근우 군은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협업·역량·소통으로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동반성장 모델

대상
단체부분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청년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일자리 수요일’ 성과

- 총 9회 개최
- 면접 참여: 177명
- 채용 성공: 35명



‘일자리 수요일’ 현장

합동 채용행사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협업을 통한 출장상담센터 운영, 청년을 위한 구글 AI에센셜 교육 진행 등 내실있는 사업 운영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상담사들의 취업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합 교육,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경진대회를 통해 총 10점을 선정·포상하며 우수컨텐츠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고용·복지·주거·금융 등 73개 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보물지도’를 개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빠르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역량 향상 노력,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